서 평

박숙자 | 지붕 위의 '소금꽃', 신여성 백년의 역사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_여성』(역락, 2011)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역락, 2011)

【서평】

지붕 위의 '소금꽃', 신여성 백년의 역사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_여성』(역락, 2011)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역락, 2011)

박숙자*

1. 그/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최근 식민지 근대 여성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 연구서 2편이 발간되었다. 『그녀들의 이야기, 신_여성』과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가 그것이다. 이 두 권을 마주 대하며 봄내, 여름내 마음두던 일들이 가을에 와서 '소금꽃'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다소 엉뚱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돌이켜보면 '신여성' 연구가 우리 연구의 화두로 본격화된 것은 십년 안팎의 일이다. 작가나 화가, 정치가의 범주로만 겨우 연구되던 신여성 연구가 '신여성'이라는 범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 그것도 당대 풍속의 리얼한 재현 속에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일 듯 일어나던 '신여성' 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새초롬히 가라앉은 모양새다. 지난 가을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명호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페미니즘'의 간판이 어느덧 유행 지난 간판처럼 추레해진 모양새로 '후지게' 내처지게 된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여성' 연구서를 2권 연이어 받아보게 되니 곤경에 처한 페미니즘 논의가 실은 위기설에 불과할지도

*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두 권의 책에는 식민지근대 여성의 삶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지난 십 년 간 문화주의적 연구를 통해 일궈낸 신여성의 풍속과 욕망, 기억과 추문이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양 A양 등 이니셜로 기록된 신여성의 이름들이 리얼한 삶의 면면으로 재현되고 있다. 나혜석, 송계월, 허정숙, 김원주, 최정희라는 이름 뿐만이 아니라 '여류문사', '직업여성', '인텔리 여성' 등의 여성 범주까지 그동안 정치적이고 문학사적 평가로 갈음되던 신여성 연구가 당대의 문화 풍속을 배경으로 리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여성' 표상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문화적 의미들이 해방적 에너지로 돌올하게 새겨지고 있으며, '여학생'의 '분홍빛 공상'이 근대 소설의 내면을 담아내는 동학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두 권이 담아내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 그리고 이야기들에 대해 이러저러한 기대를 걸며 두 권의 책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2. 신여성,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그녀들의 이야기, 신_여성』(김연숙, 역락, 2011)

아마도 2006년경 여름이었을 것이다. 7호선 상도역에서 내려 중앙대 후문을 향해 경사진 길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다. 당시 저자와 같이 중앙대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아마도 세미나를 할 요량으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동안 걸어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왔다.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니?" 더운 여름날 묻고 답하기에는 생뚱맞은 것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농으로 눙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음. 신여성들의 삶"이라고 짧게 답했던 게 생각난다. 이때 들렸던 말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라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어느 맥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지 솔직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더운 여름날

꾸역꾸역 비탈진 길을 올라가면서 주고받았던 대화는 몇 년이 지나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도 신여성의 삶이 수많은 신여성 연구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과 그들의 삶이 햇볕 쨍쨍한 여름날 비탈진 길을 올라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자조가 섞이어 그리된 것 같다.

이 책을 받아보며 5년전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그날의 기억과 엇비슷한 지점에서 이 책이 출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신여성을 기호화하면서 '여성의 범주'를 자명하게 수용하는 대신, 송계월의 삶과 최승희의 삶 등을 조명한 후 그 결과로 얻어진 '신여성'의 기호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송계월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송계월은 '-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 담론 속에서 처녀출산 소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대해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에서는 이 '소문'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식 대신, '송계월의 삶'을 끼워넣는 방식을 택한다. 동맹휴학을 주도했던 과정과 출옥 후 백화점 점원으로 취직한 일 그리고 병들어 잡지기자를 했던 일 등 송계월의 삶을 '여성작가'의 성장기로 재현한다. 처녀출산 소문과 이 소문에 대한 송계월의 대응 사이에 끼워넣어진 '송계월의 삶'은 담론 간의 쟁투를 무의미한 '소문'으로 일축해내는 효과를 자아낸다. 그녀의 삶에 내재한 고투 속에서 '소문'은 가당치도 않은 무엇으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아직 작가라 불으기가 앗갑다"라고 말해지는 송계월, 즉 '작가'로도 '기자'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상하기 어려웠던 한 여성을 그 소문의 역사 속에서 구해내는 방식은 그녀의 삶에 잠재된 '여성작가의 삶'을 서사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숙한 문학소녀"(201)로 역사의 이면 속에 배제된 한 여성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신여성'으로 몫으로 사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성의 삶에 대한 시선이 빛을 발하는 부분은 바로, 문학사에서 외면된 이름없는 신여성들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크게 3장으로 구성된 논문 체재 속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의 대강을 일별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1장 「여성, 말해지는/말해질 수 없는 그녀」에서 가장 주목했던 논의는 「슬픈 여성, 슬퍼야만 할 그녀들」이다. 주로 여성타락사가 '애화(哀話)'의 형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허황된 꿈을 좇다가 타락한 여성의 슬픔이 주조를 이룬다. 「사실애화, 창숙이 설움」, 「인테리 여성의 비극, 그 여자는 여자고보를 졸업하고 엇재서 기생과 여급이 되엿나?」 등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바, 슬픔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참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계몽된 감정이다. 이는 1920년대 쓰여진 '애화'가 여성을 계도하는 교훈적인 장르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문학 장르를 젠더적 관점으로 읽어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2장 「여성, 글을 쓰다」는 제목 그대로 식민지근대에서 여성이 작가나 기자가 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조감하는 장이다. 「저널리즘 여성작가의 탄생」이나 「사회주의 사상과 여성작가의 탄생」,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와 「낯선 여성의 등장, 신세대 여성 작가」등의 논문이 그것이다. 이 논문들은 제목 그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글쓰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다루기도 하지만, 이들이 일거에 언론매체에서 '몰락'하는 현상도 의미있게 짚어내고 있다. 1920년대 최초의 여기자로 선발된 최은희를 기점으로 김오남, 김원주 박은혜 윤성상 이현경 장덕조 최의순 등이 대거 신문 매체 안에 진입하였다가 1933년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저널리즘 공간이 상업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면모로 재편성'되는 과정과 연동한다. 이는 언론사의 화초, 화형의 존재로 매체의 선정성을 대리하던 여기자의 존재를 지면의 통속성으로 보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논의는 1920년대 언론매체의 통속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설명해낼 수 근거로 읽힐 수 있을 듯하다.

3장 「여성, 몸으로 말하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다. '모성담론', '성과학담론', '여성육체의 재현양상' 등 여성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성별화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이 장에서 주목할 만한 글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성과학 담론」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이 '과학'으

로 증명되는 과정에서 성교육의 직접적 대상자로 '여성'을 한정지으며 이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민족의 혈통 관리의 입장이 제시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성과학담론은 성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지만, 성을 관리하는 "국가권력의 메커니즘"(293)이 작동하는 지식으로, 특히 식민지조선의 빈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된 '산아제한'은 성별적 관점과 계급적 관점이 결합된 우생학적 논리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성담론과 관련된 여성 정조의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면서 "이 방법으로 혈액을 검사하면 처녀의 빙옥정절을 알 수가 잇다는 것이나 앗가운 일은 우리 조선에는 이 새로운 방법이 아즉 못들어 온 것이다"라고 하며 여성 정조에 대한 관심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식민지근대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성을 통한 새로운 욕망의 배치'로 보여준다.

이처럼 신여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미시적 담론 분석은 '신여성'에 내재해있는 식민지 젠더 정치의 양상들을 분명하게 가시화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분과 학문체계나 정치사회적 독법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여성들의 발화와 이력, 재현과 상징 등의 문제를 거쳐 오롯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여성'이 포괄해내는 함의가 몇몇 '배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여성' 내부의 불균질성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신여성이라는 기표에 활력을 주었다면 이 논의가 가지는 새로움이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성의 범주'를 자명하게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신여성 이면에 놓인 충돌하는 양상과 균열의 지점을 통해 신여성을 재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사실 '신여성'이 남성주체의 이데올로기적 해방구인 동시에 남성주체의 자기반영적 알레고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나 이 논의들의 주어가 어디까지가 남성주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은 이 책이 소제목으로 삼고 있는 '말해질 수 없는 그녀' 들을 주어로 세우는 방식도 기대해보고 싶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여성'의 이야기가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조금은 더 깊숙이

그녀들의 개별적 삶에 밀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그것만이 '신여성' 표상 바깥에서 '신여성'을 사유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학생'이라는 익숙한, 혹은 낯선 얼굴(『여학생, 근대를 만나다』(엄미옥, 역락, 2011)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몇 년전 박사논문으로 고심하던 필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필자는 '여학생'에 관한 짧은 글을 발표했는데 주위의 반응들은 대개 "왜 신여성이 아니고, 여학생이지?" 하는 것들이었고 이 질문은 세미나 내내 이어졌다. 이미 '신여성'이라는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표상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여학생을 문제삼는 것인지, '여학생'을 통해 새롭게 볼 만한 것이 있는지 것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학생 연구가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까지 집요하리만큼 강도높게 펼쳐졌다. 이러저러하게 오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학생'은 실종돼 있었고, '신여성'은 상대적으로 확고부동한 근대성의 표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상황이 이쯤되니, 왜 이토록 연구자들이 여학생과 신여성을 일치시켜 내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여학생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모호함이 점점 신여성과 길항하는 또다른 기호로 자리잡더니 급기야 그간의 신여성 연구가 실은 여학생 연구일 지도 모른다는 유추 해석까지 난무하게 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신여성'에 대한 이해 안에 여학생의 이미지를 투사시켜 보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신여성과 여학생을 등치시켜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의 반증처럼 보였다. 분명한 것은 '신여성'의 기호가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근대성의 기호로 등장하고 있었던 데 반해, '여학생'은 학교 제도 안에서 19세기 말부터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 다시말해 '신여성' 이전부터 '여학생'은 근대 여성의 존재형식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여성'의 기호가 근대성의 형성과 관련해서

‘근대 여성’을 포괄하는 용어였던 것에 비해 ‘여학생’은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라는 사실일 것이다.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라는 책은 이러한 몇가지 오해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300페이지 가량 되는 박사논문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에 덧붙여 별책으로 첨부된 근대 여학생 기사를 보게 될 쯤 ‘여학생’이 신여성의 정체성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 빛깔의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마도 짐작컨대, 이 책이 가진 유용함은 ‘신여성’이라는 근대 표상 이면에 놓인 여학생의 ‘내면’, 여학생의 ‘열정’, 여학생의 ‘취향’ 등을 근대 여성의 몫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즉 ‘표상’ 이면에 놓인 근대여성의 존재형식에 물음을 던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어쩌면 이 책을 다 읽게 될 쯤, 또다른 ‘여학생’으로 책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여학생’은 여성의 내면이 놓인 장소이고 기억이며 신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근대소설’과 ‘여학생’이라는 두 개의 범주가 접속하며 만들어내는 소설 형성의 풍경을 그려낸다. 우선, 책의 1장에서는 근대제도 안에서 구성되는 ‘여학생’의 기호가 ‘국가주의’ 안에서 정착, 발견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특히 당시 조선은 문명화와 근대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명제를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배움이 “여성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목표로 하는 구사상과 관습의 타파, 이상적 가정의 수립, 그 일환으로써 자유연애를 실현할 이상적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요청”(69)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기호가 다소 형식적으로만 차용되면서 여학생 자신들도 사랑에 윤리적 잣대를 적용시키며 자신이 도달한 ‘사랑’을 단죄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추상적인 내면의 각성을 드러내는 고백체의 일기가 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여학생은 식민지 조선 속에 분명한 개체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말해진다. 대표적인 잡지가 『신여성』이다. 『여자계』와 『신여자』가

선진자, 선각자로서 개조와 계몽의 주체로 표상되었다면(138), 『신여성』에 보이는 여학생은 그 중심 기의가 바뀌면서 자율적인 목소리와 욕망의 주체로 당당히 근대 식민 문화로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소녀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집단이 자기 욕구와 번민 등을 해방시키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이 이 공간을 통해 여성의 내면이 무엇인지 탐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학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물론 당시 이들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며 고유의 취향, 언어, 풍속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담론화되었지만, 이런 시선과 길항하며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여학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실 여학생들이 선도해내는 새로움의 감각들이 문화적 자본으로 정착하는 것은 여학생의 몸 자체가 근대성을 표상하는 상징자본이 되어감에 따라 맞이하게 된 결과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920년대 여학생들이 지배체계에 오염되지 않는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학생들의 '편지쓰기'는 자율적인 내면의 경계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이 책의 3장에서는 1930년대 중반이후 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텔리 여성'이 '여학생'의 기호를 대리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신여성이 표상하던 여성의 각성이나 해방 등의 사상적, 실천적 의미는 퇴색하고 현대여성이라는 호명 아래 결혼과 연애 등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번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25).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배움과 교양은 스위트 홈의 가정주부가 되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된다. 1910년대부터 시작된 일기쓰기가 이 시기에 와서 '주부일기'로 바뀌는 것, 여성으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중산층 이상의 주부로 설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모든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결혼이다"(235)라는 고백이 그대로 전시되는 것 등 '여학생'의 기호는 이 시기에 이르러 흐리마리해진다. 이들은 여학생 시절을 반추하며 사진이나 편지 등을 통해 그 시절을 회고하는데 그러면서 회고풍의 글쓰기 장르가 풍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근대여성의 핵심적인 표상으로 '여학생'을 꼽으며 이를 통해 근대소설의 구성원리를 발견해 낸다. 저자는 단적으로 "근대의 다양한 경험 및 제도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대응이 문학의 심적 제도 혹은 문학의 내면을 형성한다면 여학생이라는 제도이자 인물은 사회문화적인 근대성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예술적 미적 근대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언급에 따르면, 여학교 시절을 추억하는 회상기법의 서술방식, 근대적 교육제도의 산물인 기숙사, 학교, 동성애 등의 새로운 이야기거리와 사건의 전개,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낭만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제재 등은 텍스트의 구조를 추동시키는 이야기의 축이다. 아마도 저자는 '여학생'이 근대여성들의 원형인 동시에 작가들의 밑바닥에 놓인 욕망들을 자극하면서 이끌어내는 기호라고 추정하는 듯싶다. 약간의 비약이 상상력으로 번뜩이는 이 대목에서 다시한번 느껴지는 것은 '여학생'이라는 신체, 다시말해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이기도 한, 이 신체를 두고 벌인 남성작가들의 상상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그간 '신여성' 담론으로 논의되었던 식민지근대의 여성 표상 논의를 예각화한 논의로서 여성의 존재형식과 이것이 야기한 근대적인 글쓰기 양식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신여성'이 근대성의 표상으로 식민지 근대를 풍미하는 기호였다면, '여학생'은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존재형식이라는 점을 여러 시각적인 자료와 담론 등으로 제시하면서 왜 '여학생'인지 웅변해낸다. 그리고 이를 근대소설의 시학과 연결시켜 논의하면서 근대소설의 형성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젠더적 질서를 설명해낸다. 이는 이 책이 선취해낸 새로운 결과이다. 물론 여기에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여학생'의 기호를 근대여성의 존재형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 자료가 소설과 잡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여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여학생의 탄생'을 둘러싼 물리적, 제도적 변화와 양식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책이 진전시킨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여학생의 내면이 근대 소설을 움직여간 지렛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참신하고 새롭다.

4. ‘여성’이라는 늘 새로운 시작

400페이지 가량의 두 권에서 10년간의 무게가 느껴졌다고 하면 조금은 과장될까?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의 저자와 한국여성연구소에서 만나 같이 공부한 지가 벌써 18년쯤 되어가는 듯하고,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의 저자와 학교 선후배로 만나 공부한 지가 얼추 십 여년이 되어가는 듯싶다. 이 두 권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이 책에 대해 글 쓰는 지금, 이 세월의 무게 속에서 이 시간 켜켜히 녹아있는 기억과 느낌들은 여전히 지붕위에 올라선 자들의 외침이고 아우성일 것라고 믿고 싶다. 이는 조금은 비장할 정도로 고단하게 여성들의 ‘외딴방’을 같이 들여다 본 동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부분 부분에서 같이 멈춰서서 고민했었다는 나름의 기억 때문이다.

신여성, 혹은 여학생이라는 기호는 식민지근대 세계의 문화적 헤게모니이자 주변화된 타자의 이름이다. 이 타자들이 뿜어내는 해방적 에너지는 거칠지만 매혹적이고, 불안한 동시에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들이 뿜어대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에너지를 또다른 지식으로 구성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정한 욕망과 표상을 그대로 보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문화적 각인의 불안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신여성’, ‘여학생’이 단일하게 안정된 범주로 설정된다면 그것은 가장 충실하게 성차의 축을 수용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여성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변용해낼 수 있는 힘, 이 속에서 여성의 유효한 범주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들을 읽는 내내 젠더적 시각이 여전히 해방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독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금꽃'을 만들어내는 자리마다 여성의 기호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은 여성의 '타자성'이 일궈낸 결과가 아닐까 싶다. '여성'의 기호가 불러들이는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성이 그간의 인식론적 지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자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균열을 추동하는 힘, 그 타자성의 서사에 좀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언덕을 오르며 물었던 그 사소한 이야기가 사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